

한국경제TV

중국 홍수 피해 25조원·수재민 5천만명...산샤댐 수위 또 상승

기사입력 2020-07-29 11:43 최종수정 2020-07-29 12:15

산샤댐 수위, 최고수위 175m와 12m 차이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중국 남부지방 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5천만명을 넘은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산샤(三峽)댐의 수위도 다시 상승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평파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응급관리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장시·안후이·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5천481만1천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실종했고 376만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가옥 4만1천여 채가 붕괴하고 농경지 5만2천여km²가 물에 잠기는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 1천444억여 위안(약 24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 여름 중국 수재민은 이미 한국 인구(약 5천178만여명) 수를 넘어섰고, 농경지 피해액도 한국 전체 면적(약 10만km²)의 절반보다 많다는 것이다.

응급관리부는 "최근 5년 동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재민은 23.4%, 긴급대피 인원은 36.7% 늘었다"면서도 "사망·실종자는 53.9%, 붕괴 가옥 수는 68.4% 줄었고 직접적 경제손실액은 13.8% 늘어났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에 계속된 비로 창장(長江·양쯔강) 유역 홍수 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썬샤(三峽)댐 수위도 상승, 최고수위(175m)에 12m 정도 못 미치는 163.36m를 기록 중이다.

중국은 이번 양쯔강 유역 홍수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달 2일 1호, 17일 2호 홍수가 발생한 데 이어 26일 3호 홍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썬샤댐 수위는 2호 홍수가 지나가던 지난 19일 오후 8시(현지시간)에 164.18m까지 올라간 바 있다.

이후 방류량을 늘리면서 23일 오후 8시 수위는 160.15m로 내려갔는데 다시 3호 홍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8일 오전 8시 162.45m였던 수위는 29일 오전 8시에 163.36m로 상승했다.

29일 오전 8시 기준 1초당 방류량은 4만100m³, 유입량은 3만7천m³로 방류량이 약 3천m³ 더 많은 상황이다.

썬샤댐이 위치한 후베이성 방재 당국은 "3호 홍수가 썬샤댐을 이미 지나갔다"면서도 "창장 중류의 수위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응급관리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 스서우(石首) 아래 창장 중하류 등이 계속 경계 수위를 넘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창장 중·하류에는 우한(武漢),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비롯해 동팅후(洞庭湖)·포양후(? 陽湖)·타이후(太湖) 등 대형 담수호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29일부터 강우대가 북상하면서 창장 중하류 유역 강수량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창장 상류에서 여전히 많은 물이 흘러오고, 창장과 화이허(淮河) 유역 여러 곳의 수위가 높다. 안후이·후베이·후난성 등은 여전히 중소 규모 하천 홍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산샤댐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im@wowtv.co.kr

- ▶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15&aid=0000889594>
